

네덜란드 NETHERLANDS



개정된 성범죄 관련법 시행 이후 현황

곽 서 희 레이든 대학교 정치학과 강사

- 네덜란드에서는 2024년 7월부터 개정된 성범죄 관련법(Sexual Offences Act)이 시행되었다. 그리고 사법부는 관련법의 인식 제고를 위해 전국적으로 대국민 캠페인을 한 바 있다. 대국민 캠페인은 개정된 법에 담긴 주요 내용을 알리는 방식으로, 텔레비전, 라디오, 소셜미디어 등 다양한 미디어 채널을 통해 몇 주간 진행되었다. 본 원고는 네덜란드의 개정된 성범죄 관련법 주요 내용과 더불어 실질적인 이행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 네덜란드에서 개정된 성범죄 관련법이 시행되면서, 우선 성희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의 법적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예를 들어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은 형사 범죄로 간주된다. 이 밖에도 원치 않는 신체접촉, 성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거나 조롱하는 언행, 개인의 존엄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전반을 포괄한다. 또한 온라인 성희롱, 성적인 메시지를 보내는 행위, 성적으로 협박하는 행위 등이 포함되었다.
- 특히 온라인상에서 16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적인 대화뿐만 아니라, 취약한 상태에 있는 16세 및 17세 청소년에게 성적으로 접근하는 행위까지 범죄로 규정했다. 성적인 목적을 갖고 실제 만남을 제안했는지가 관건이 아니라, 그 행위 자체를 범죄로 보았다. 이러한 제도적 조치는 실제 아동 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성적 학대가 발생하기 이전 단계에서보다 효과적인 조기 대응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개정된 법에서는 성범죄의 개념적 범위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처벌 수위도 강화되었다. 우선 강간은 공소시효가 폐지되어 더이상 공소시효 제한을 받지 않게 되었고, 강간 피해자는 피해를 입었다는 점과 강제력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필요가 없어졌다. 그리고 12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간의 경우, 최대 징역 15년형이 적용된다. 아동이 12세에서 16세 사이일 경우에는 최대 징역 1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아동 포르노와 관련된 범죄의 경우, 최대 형량이 6년으로 증가했다.

참고자료

- CBS (2024.11.25) "Over 1.7 million victims of sexually transgressive behaviour",
<https://www.cbs.nl/en-gb/news/2024/48/over-1-7-million-victims-of-sexually-transgressive-behaviour>
(접속일: 2025.1.19).
- De Volkskrant (2024.3.21.), "Bij de nieuwe zedenwet is 'nee' in bed een harde grens",
<https://www.volkskrant.nl/nieuws-achtergrond/bij-de-nieuwe-zedenwet-is-nee-in-bed-een-harde-grens~b4752dc2/>
(접속일: 2025.1.19).
- Dutch News (2024.7.1.) "New modernised and consent-based sex offence law takes effect",
<https://www.dutchnews.nl/2024/07/new-modernised-and-consent-based-sex-offence-law-takes-effect/>
- Dutch News (2024.11.26.) "Some 12% of the Dutch are victims of sexual harassment",
<https://www.dutchnews.nl/2024/11/some-12-of-the-dutch-are-victims-of-sexual-harassment/>

또한, 개정된 법은 '합의'에 기반한 성관계라는 개념을 포함시켰다. 언어든 신체적으로든 원하지 않는다고 표현한 상대방과 성관계를 하면 범죄로 간주한다는 것이다. 성범죄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한 변호사는 네덜란드 주요 일간지 중 하나인 De Volkskrant와의 인터뷰에서 "이전에 시행되던 법은 구시대적 제도였으며, 개정된 법에서는 성범죄를 정의하는 개념적 장벽이 훨씬 낮아진다고 보았다. 반면, 실제로 쌍방 합의가 있었는지를 증명하는 일이나 합의에 의한 성관계였는데도 이후 기소되어 법적 논란에 휩싸일 수 있다는 점 등은 과제로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성범죄 관련법이 시행발효된 이후, 네덜란드에서는 실제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이 내려졌다. 2024년 말에는 네덜란드 로테르담 법원이 공공장소에서 한 여성을 괴롭히고 위협한 남성에게 벌금을 부과한 바 있다. 30대 초반의 이 남성은 한 여성을 따라오고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몇 달 전 기소되었고, 이후 법원에서 100유로(한화 약 15만 원)의 벌금을 선고받았다. 로테르담 법원은 만약 해당 남성이 재범을 저지를 경우 추가 벌금 180유로(한화 약 27만 원)를 부과한다는 조건을 붙였다. 네덜란드에서는 공공장소 질서나 법률 준수 여부를 단속하는 특별단속공무원(Buitengewoon opsporingsambtenaren, BOA)이 있는데, 이들이 순찰 중 피해 여성이 불쾌함을 표시하고 방어적인 동작을 취하는데도 가해자가 성추행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해당 법에 의거하여 연행한 것이다.

또 다른 대도시 중 한 곳인 위트레흐트에서는 한 50대 남성이 공무원에게 성적인 발언과 행동을 취하면서 성희롱한 결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는데 벌금을 낼 수 없다고 주장하여 결국 판사로부터 2일간의 수감, 피해자인 공무원에게 150유로(한화 약 22만 원)를 지급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네덜란드에서 공공장소에서의 성희롱과 성추행에 대해 실질적인 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네덜란드의 개정된 법의 시행은 제도적인 성과를 이루었지만, 성범죄를 근절하기까지는 좀 더 긴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네덜란드 통계청(CBS)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2024년, 네덜란드에서는 16세 이상 약 170만 명이 성적으로 선을 넘는 일련의 행동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2년 조사 결과보다는 감소한 수치이지만, 2020년과는 거의 동일한 수준이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응답자의 약 8%인 120만 명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욕적인 성적 암시가 담긴 발언이나 농담과 같은 오프라인 성적 협박의 피해를 입었다. 그리고 응답자의 약 5%가 온라인에서 성적 협박을 경험했다고 답했으며, 나체 사진이나 성적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되거나 나체사진을 보내라는 강요를 받는 사례 등이 있었다. 응답자의 4%가 실제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는 조사 연도 기준 약 52만 명이 원치 않는 신체접촉, 키스 및 기타 성적 행위를 당했음을 의미한다. 피해자의 대부분은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네덜란드 정부는 효율적인 법 시행을 위해 이미 경찰 및 검찰청과 같은 관련 기관들과 함께 제도 이행 절차에 돌입했는데, 해당 법의 운영 지침 개발, 정보통신기술(ICT) 재정비, 그리고 관계자 직무 교육 등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약 25,000명의 경찰서 접수 담당자, 성범죄 담당 수사관 등 경찰 관계자들이 개정 시행된 성범죄 관련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이 밖에도 사법절차에서도 개정된 법을 적용한 실제 판례가 나오고 있는 만큼, 앞으로 네덜란드 내 공공장소 및 온라인상에서 성범죄 감소를 기대해 볼만하다.

-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2024.3.20) "New act to address sexual offences enters into force on July 1, 2024", <https://www.government.nl/latest/news/2024/03/20/new-act-to-address-sexual-offences-enters-into-force-on-july-1-2024> (접속일: 2025.1.19).

- NOS (2024.10.7) "Geldboetes en celstraf in derde rechtszaak over seksuele straatintimidatie", <https://nos.nl/artikel/2539956-geldboetes-en-celstraf-in-derde-rechtszaak-over-seksuele-sstraatintimidatie> (접속일: 2025.1.19).

- The Guardian (2024.10.3) "Dutch court fines man in first conviction under new sexual harassment law",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24/oct/03/netherlands-dutch-court-rotterdam-man-fined-sexual-harassment-law> (접속일: 2025.1.19).



연금 성별 격차로 본 구조적 성 불평등 문제와 과제

조혜인 모내시대학교 (Monash University) 한국학과 조교수·젠더와 가정폭력 예방센터 책임연구원

- ▶ 호주의 여성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보다 적은 연금 잔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특히 은퇴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약 25% 더 적은 잔액을 갖게 된다. 이러한 성별 연금 격차는 임금 격차와 고용 형태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 호주에서는 남성이 1호주달러를 벌 때, 여성은 평균적으로 0.89호주달러를 벌고 있어 연간 약 12,038호주달러의 소득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
 - 또한, 남성과 여성 간 풀타임 평균 임금 격차는 11.5%p에 달하며, 여성은 남성보다 시간제나 비정규직으로 고용될 가능성이 더 높아 이러한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 ▶ 오랜 기간 호주의 노동조합과 여성운동 단체들은 여성이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과정에서 경력 단절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을 지적해 왔다. 이는 연금 기여금 감소뿐만 아니라 복리 효과로 인한 자산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호주 연방 정부는 2025년 7월 1일부터 유급 육아휴직 동안 연금 보장금을 지급하는 새로운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 발표했다.
 - 케이티 갤러거 호주 여성부 장관은 이 정책이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이유로 노동시장을 떠날 때 발생하는 퇴직 소득 감소를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하였다.
 - 아만다 리스워스 호주 사회서비스부 장관 또한 이 조치가 성평등을 우선 고려하며, 돌봄 노동의 가치를 제고하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는 중요한 단계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 호주 연금 기관 협의회(ASPA)는 이 외에도 젠더폭력 관련 연금 법안의 개정을 촉구하며,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연방정부에 신속한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 ▶ 현행법에 따르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사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의 연금 사망 보험금(death benefits/cover)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가해자가 젠더폭력 범죄로 유죄판결 이력이 있거나, 피해자의 사망 원인에 간접적으로 기여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 호주의 법률(예: Family Law Act 1975 및 Property (Relationships) Act 1984)에 따르면, 결혼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 관계(De facto relationships)에 있는 경우, 재산 분할, 생활비 청구, 자녀 양육 및 지원, 연금, 그리고 상속 권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 ▶ 전문가들은 가해자가 피해자의 연금 사망금을 수령하는 행위를 폭력의 연장으로 간주하며, 법안 개정의 목적은 단순히 가해자의 재정적 이익을 차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호주 사회에서 어떠한 형태의 폭력도 용납되지 않는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 최근 호주 정부가 발표된 유급 육아휴직 기간 중 연금 보장금 지급 정책은 여성들의 경제적 불평등 완화 및 성평등 증진에 중요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의 실효성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고, 젠더폭력 관련법적 허점을 보완하는 추가적인 개혁이 지속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Department of Social Services (2024.3.7). Super on Paid Parental Leave and expansion of the scheme. <https://www.dss.gov.au/paid-parental-leave/super-paid-parental-leave-and-expansion-scheme> (접속일: 2025.1.19.)
- The Association of Superannuation Funds of Australia (2024.8.8). Super sector calls for urgent legal reform to stop abusers getting victim's super. <https://www.superannuation.asn.au/media-release/super-sector-calls-for-urgent-legal-reform-to-stop-abusers-getting-victims-super/> (접속일: 2025.1.19.)
- Webster, S. (2024.10.4). Super and the gender gap: closing the retirement savings divide. <https://www.theage.com.au/money/super-and-retirement/super-and-the-gender-gap-closing-the-retirement-savings-divide-20241003-p5kfoe.html> (접속일: 2025.1.4)



여성 생식 건강의 현실과 정책과제

이 지 원 런던열대의학위생대학(London School of Hygiene & Tropical Medicine) 개발보건학 석사

2024년 12월 11일, 영국 여성과 평등 위원회(Women & Equalities Committee)는 여성 생식 건강의 현실과 의료 체계 내 문제를 조명한 '여성의 생식 건강 상태(Women's Reproductive Health Conditions)'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영국 여성들에게서 흔히 발생하는 자궁내막증, 자궁선근증, 자궁근종, 다낭성 난소 증후군, 과다 월경 출혈 등과 같은 질환의 진단과 치료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이러한 어려움은 의료 제공자가 생식 건강 상태의 특이점을 발견하기가 어렵고 인력의 전문성과 자원이 부족하여 발생하기도 하지만, 영국 의료 체계 내 여성 혐오적 태도와 연구 및 지원 부족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영국 여성의 약 3명 중 1명은 심한 월경 출혈을 겪고 있으며, 10명 중 1명은 자궁내막증이나 자궁 선근증과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 그러나 여성의 복통이 종종 월경통으로 단순히 치부되어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난소 낭종 등 질환을 앓는 여성들은 일상생활을 포기해야 할 정도의 고통을 견뎌내야 하며, 수개월 혹은 수년 동안 병명을 알지 못한 채 상태가 심해지는 경우가 많다. 치료 시기를 놓친 여성들은 영구적인 손상이나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지는 심각한 고통을 경험하기도 한다. 이러한 높은 유병률과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성별 고정관념, 사회문화적 요인, 남성 중심의 연구, 편향된 의학 지식에서 비롯된 의학적 여성혐오(Medical Misogyny)가 여성 생식 건강 개선을 가로막는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 의학적 여성혐오는 여성이 심각한 통증이나 생식 건강 문제로 병원을 찾았을 때 이를 경시하거나 무시하는 행태를 의미한다. 이는 의료 체계 내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아 여성 생식 질환의 오진율을 높이고, 진단과 치료 과정에 더 많은 시간을 소모하게 만든다. 조사에 참여한 한 여성 환자는 "초경 때부터 월경은 고통스러운 것이고, 참고 견디는 것이 당연하다는 말을 들어왔다"고 말하며, 의료계가 여성의 통증을 과소평가하거나 정상화(normalization)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자궁내막증과 같은 질환에 대해 의료 종사자들의 교육 부족, 제한적인 연구와 치료 옵션, 사회적 낙인(pervasive stigma)으로 인해 여전히 질환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적절한 치료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 영국 양당 협력 위원회(Cross-party committee)에서는 성교육(Relationships, sex and health education)에서 월경과 생식 건강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않으며, 초경 시기에 비해 성교육 시기가 늦는 경향이 있다고 평가했다. 적절한 성교육을 받지 못한 청소년들은 여성 생식 질환에 대한 정보를 비공식 경로에서 얻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잘못된 정보 제공과 질병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초경 시기가 앞당겨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성교육 시기를 재조정해야 하며, 월경 및 부인과 건강 정보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또한, 남성 청소년들에게도 여성 생식 건강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사회 전반의 관심을 높이고, 이를 통해 여성 생식 건강에 대한 인식 개선과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참고자료

- UK Parliament (2024.12.11.), "Medical misogyny' is leaving women in unnecessary pain and undiagnosed for years", <https://committees.parliament.uk/committee/328/women-and-equalities-committee/news/204316/medical-misogyny-is-leaving-women-in-unnecessary-pain-and-undiagnosed-for-years/> (접속일: 2025.1.16.)
- House of Commons (2024.12.6.), "Women's reproductive health conditions", <https://committees.parliament.uk/publications/45909/documents/228040/default/> (접속일: 2025.1.16.)
- The Guardian (2024.12.11.), "Medical misogyny' condemns women to years of gynaecological pain, MPs told", <https://www.theguardian.com/society/2024/dec/11/medical-misogyny-condemns-women-to-years-of-gynaecological-pain-mps-told> (접속일: 2025.1.16.)
- BBC (2024.12.11.), "Medical misogyny' sees women told to 'put up' with pain", <https://www.bbc.com/news/articles/c23v42jdle7o> (접속일: 2025.1.16.)
- The Standard (2024.12.11.), "What is medical misogyny? Government and NHS face 'urgent wake-up call' on women's health services", <https://www.standard.co.uk/news/health/medical-misogyny-nhs-government-report-b1199437.html> (접속일: 2025.1.16.)
- Healthcare Outlook (2024.9.2.), "Misogyny in Medicine", <https://www.healthcare-outlook.com/healthcare-insights/misogyny-in-medicine> (접속일: 2025.1.16.)

- 영국 보건사회복지부(Department of Health and Social Care)는 2022년 발표한 여성 건강 전략(Women's Health Strategy)의 일환으로, 1차 시행년도에 여성건강센터(Women's Health Hub)를 신설하여 센터에 근무하는 보건 전문가들에게 월경 및 부인과 건강에 대한 책자를 배포하여 자궁내막증과 월경통에 대한 정보를 제공했다. 2차년도에는 해당 교육 자료를 개정하고 자궁내막증과 월경통 관련 연구를 지원하여 이러한 증상 및 질환의 진단 시간을 단축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의 미비와 자원 부족으로 인해 진전이 더디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생식 건강 상태의 치료 및 진단 경험 개선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긴급한 시행이 필요하며, 조기 진단 개선이 영국 여성 건강전략의 핵심 성과 지표가 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영국 여성의 생식 건강 개선에 있어 영국 국가보건서비스(National Health Service, 이하 NHS)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NHS는 진단 및 치료 개선 요구에 대한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지만, 보건의료 종사자들 역시 사용할 수 있는 치료 옵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진료 적합성을 갖추지 못한 상황이다. 보고서는 영국 보건사회복지부가 1차 보건의료 종사자들의 여성 생식 건강 전문성을 개발하고, 질환에 대한 접근성과 참여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생식 건강에 대한 교육 기금을 늘리고, 1차 의료를 제공하는 주치의(General Practice)가 이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산부인과를 의무 교육 과정으로 지정하고, 여성 생식 건강 전문의를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하며 영국 NHS와 국립보건임상연구소(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에서 모든 생식 건강 상태에 대한 포괄적인 지침을 개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 여성 생식 건강 증상 및 질병의 원인을 밝히고, 새롭고 더 나은 진단 도구 및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모든 여성 그룹과 관련 당사자를 포함한 충분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러나 영국에서는 자금 지원자나 정책 결정자들이 이를 우선순위에 두지 않고, 임상 학계에서도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영국 정부는 여성 건강전략을 통해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다 야심 차고 체계적인 연구 및 정책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향후 영국에서는 여성 생식 건강에 대한 국가적 우선순위를 재정립하고, 모든 여성 집단을 포함한 포괄적인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